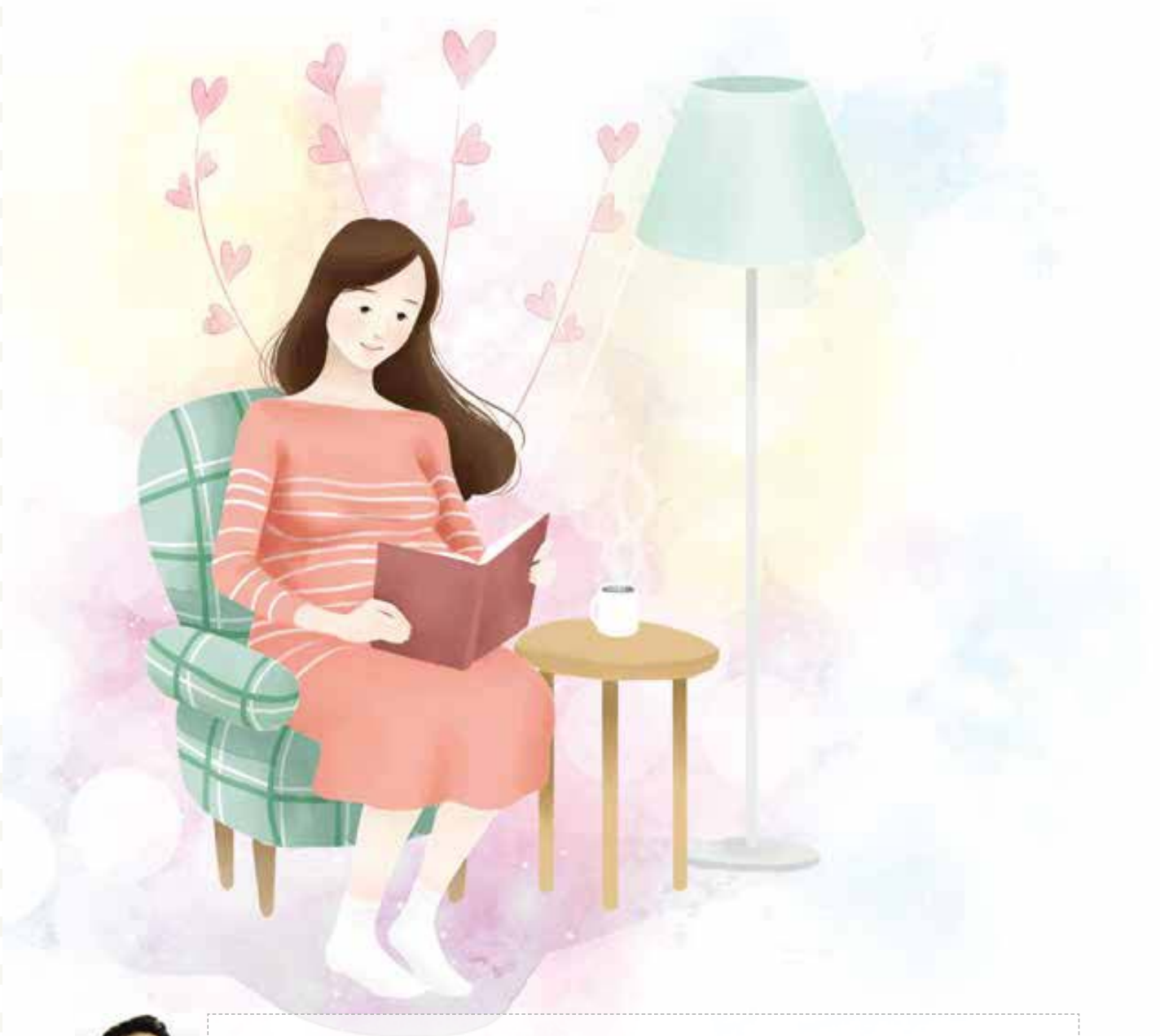


최초의 감각, 최후의 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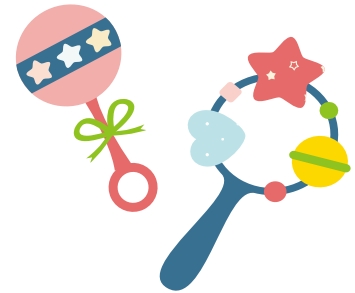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 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을 시작합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태아의 상태를 알아보는 태아안녕검사 중이다. 별다른 움직임도 없고 심박동수의 변화도 없는 것으로 보아 단잠에 빠진 게 분명하다. 그러나 검사를 위해서 깨워야 한다. 현재 태아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태아만 들을 수 있는 초음파 주파수를 들려준다. 초음파 진동소리에 깨어난 태아는 힘찬 움직임과 함께 심박동수가 증가하며 자신의 존재함을 알린다.

사람은 언제부터 들을 수 있으며, 또 귀는 듣는 것 이외에 어떤 일을 할까?

놀랍게도 사람의 귀는 수정된 지 한 달 정도 지나면 생기기 시작한다. 외이, 중이, 내이로 구성되어 있는 귀는 양쪽에서 마주보고 전진하다가 중앙에서 만나 연결되고, 제8번 뇌신경인 청신경과 혈관 등이 분포하게 되면서 비로소 완성된다. 태아의 내이는 16주부터 완성되기 시작하여 20주(임신 5개월)가 되면 외부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태아의 청각 발달은 어머니의 신체 내부 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 쿵닥쿵닥 하는 어머니의 심장소리, 꾸르르 하는 어머니의 배에서 나는 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저음의 아빠 목소리.

이러한 소리들은 태아의 청각을 자극하여 뇌 발달을 자극하고 돕는다. 이처럼 청각의 발달은 뇌 발달을 유도하는데, 특히 이 시기의 청각은 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적절한 ‘소리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태아는 소리에도 반응하지만, 소리 속에 담긴 사랑이나 분노의 감정, 즉 ‘의미’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소리와 의미를 전달받는가에 따라 태아의 청각은 물론 뇌와 감정의 발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귀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귀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머리를 똑바로 세울 수 있게 하며, 전후좌우를 구별할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서 있거나 걸을 때에 몸이 일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귀가 청각과 균형 유지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듣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통찰하게 한다. 우리는 많은 소리들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특히 의미가 포함된 소리일수록 그렇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소리는 들더라도 그 의미는 다가오지 않는다. 마음이 편향되어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들을 수 없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인 귀, 이러한 귀에 균형의 기능을 부여하신 창조주의 섭리는 어쩌면 균형 있게 듣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닐까.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변화를 가져온다. 태아에게는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가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뇌파를 유도하여 뇌의 발달과 분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좋은 소리, 즉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와 의미 있는 속삭임이 태아의 몸과 정서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태아는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없다. 모든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가장 편안한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에 더 집중한다. 다른 소리들은 들리기는 하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성인이 된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살아간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지 말아야 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밀려오는 수많은 소리와 의미 속에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듣지 못한 채, 듣지 않아도 될 무의미한 메시지를 찾아 헤매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에 따라 듣는 것도 달라진다. 반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대상도 달라질 수 있다.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 영적 상태의 한 측면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어린아이인 태아는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를 들을 때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된다. 마찬가지로 성인이 된 우리도 궁극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삶의 정점에서 서게 될 것이다.

사람의 오감 중 가장 먼저 완성되어 그 기능을 시작하는 것이 귀, 바로 '듣는 것'이다. 사람의 감각 중 듣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된다는 것은 그만큼 듣는 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제일 먼저 시작된 감각인 청각은 우리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는 최후의 감각이기도 하다. 호스피스 병동이나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도 특별한 부분에 손상이 없는 한은 모두 들을 수 있다. 다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착각할 뿐이다. 따라서 그런 분들에게 찬송가나 설교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듣는 감각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최초 감각이자 최후의 감각인 청각.

20주경의 태아 때부터 삶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감각.

소리와 균형의 조화로 이루어진 기관, 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까? 